‘金배추’ 이어 ‘金야채’

배추값 폭등에 양상추·대파 등 야채값도 천정부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 폭등에 이어 양상추·무·대파 등 야채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19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각 대형마트의 양상추(1봉 300g) 평균 소매 가격은 2천98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980원에 비해 무려 204%나 오르는 등 대부분의 야채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또 무(1개)가 지난해 1천280원에서 올해 2천480원으로 93.7% 오른 것을 비롯해 고추(200g)는 2천260원에서 4천360원으로 92.9%, 대파(1단)도 1천680원에서 2천780원으로 65.4%, 가시오이(1봉 6개)는 2천280원에서 3천360원으로 47% 올랐다.

고구마(1봉 800g.해남산 기준)는 지난해 1천980원에서 2천980원으로 51%, 브로콜리(1봉 500g)는 1천580원에서 2천980원으로 89%, 청피망(1봉 300g)은 1천580원에서 2천580원으로 63% 상승했다.

도매물가도 크게 올라 광주서부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무(18kg)는 지난해 4천735원에서 올해 1만7천409원으로 267.6%, 배추(10kg)는 2천883원에서 8천150원으로 182.6% 올랐다.

이밖에 청상추(4kg)는 1만927원에서 2만629원으로 88.7%, 대파(1kg)는 813원이던 것이 1천736원으로 113.5%, 풋고추(10kg)는 2만1천692원에서 3만4천314원으로 58.1%씩 상승했다.

이처럼 야채류의 도·소매 물가가 급등한 원인은 파종시기인 8~9월에 태풍과 잦은 비로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많았던데다 고온현상까지 겹쳐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친 농가가 많아 물량이 달리기 때문이다.

또 불안정한 기상 때문에 생육이 늦어지는 등 작황도 좋지 않아 산지 출하량이 급감했고, 지난해와 올해 초에 야채 가격이 바닥세를 형성하면서 재배를 포기한 농가가 많았던 것도 가격폭등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2개월 전부터 산지와의 구매계약 및 사전물량확보를 통해 어느 정도 가격조절이 가능한데도 산지값이 워낙 뛰어 ‘야채를 금채’라고 부르고 있다”며 “산지물량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일부 유통업체의 경우 야채 도소매를 포기할 정도”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야채류 가격변동

구분	품목	단위	2006년 11월	2007년 11월
소매물가	양상추	300g	980원	2,980원
	무	1개	1,280원	2,480원
	고추	200g	2,260원	4,360원
	대파	1단	1,680원	2,780원
	가시오이	6개	2,280원	3,360원
	고구마	800g	1,980원	2,980원
	청피망	300g	1,580원	2,580원
도매물가	배추	10kg	2,883원	8,150원
	무	18kg	4,735원	17,409원
	청상추	4kg	10,927원	20,629원
	풋고추	10kg	21,692원	34,314원
	대파	1kg	813원	1,736원

기업 CEO 농촌사랑 나섰다

‘농촌·농협사랑 CEO모임(농사모·이증근 태산종합건설 대표)’은 최근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등 4개 마을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전기안전점검, 시력검사 등 농촌사랑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농사모는 농촌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전남 동부지역 기업체 대표 25명으로 결성됐다. 〈농사모 제공〉

광주상의 후임회장 후보 단일화 중재

상임의, 27일까지 접촉

광주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는 후임회장 합의추대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1차 중재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상임의원회는 19일 제 9차 회의를 갖고 중재위원으로 김성산 부회장, 정상길·김규룡 상임의원 등 3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박흥석 광주상의회장 직무대행과 이승기 상임의원을 접촉,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상임의원회는 이 기간동안 단일후보 합의추대 노력을 기울이되, 무산될 경우 28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 상임의원은 “광주상의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단일후보 추대를 바라는 전체 상공의원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상임의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테니스 빅스타 ‘오피러스’ 탄다

테니스 빅스타 로저 페더러와 피트 샘프라스 선수가 한국방문 기간 동안 기아 최고급 승용차인 오피러스를 탄다. 기아차는 20일 열리는 현대카드 수퍼매치 경기 참가를 위해 19일 입국한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피트 샘프라스와 로저 페더러 선수의 의전차량으로 오피러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선수들 이외에도 선수 매니저와 운영진들을 위해 뉴오피러스 2대와 그랜드 카니발 2대를 의전차량으로 추가 제공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미국산 쇠고기 한국 3대 수입국

미국산 갈비 수입여부를 놓고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행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조건 아래서 이미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와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와 미국농업부(USDA)의 쇠고기 수출 통계자료에 따르면 두번째 등뼈 발견으로 10월 초 미국산 수입검역이 전면 중단되기 직전인 9월 한달 동안 우리나라는 3천345만3천달러어치, 6천76t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다.

이는 미국의 수출 상대국 가운데 캐나다(5천266만9천달러, 1만1천199t)와 멕시코(5천80만9천달러, 1만3천621t)에 이어 세번째며, 4위인 일본의 수입액 1천893만달러(3천855t)보다 77%나 많은 규모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수입액의 경우 한국은 1억650만6천달러(2만2천240t)로 일본(1억7천415만7천t) 다음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먹고 살만해졌나?

3분기 엥겔계수 26% … 3년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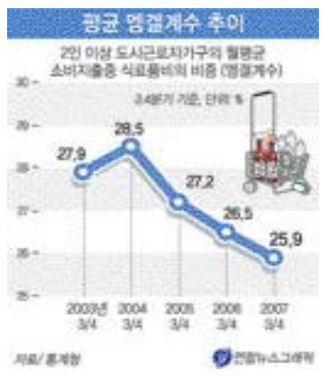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문화생활 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3·4분기 엥겔계수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엥겔계수)은 25.9%로 지난해 같은 기간(26.5%)에 비해 0.6%포인트 떨어졌다.

3·4분기 기준 도시근로자가구의 엥겔계수는 2003년 27.9%에서 2004년 28.5%로 상승했다가 2005년 27.2%, 2006년 26.5% 등 3년 연속 하락세다.

여기서 엥겔계수는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을 기초로 소비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것으로 외식비와 주류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엥겔계수와는 차이가 있다.

소득 5분위별로 엥겔계수를 살펴보면 3·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엥겔계수는 30.4%였고, 2분위 29.3%, 3분위 27%, 4분위 25.4%였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엥겔계수는 22.6%로 집계돼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비율이 낮다는 ‘엥겔의 법칙’이 가계수지 동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처럼 엥겔계수가 계속 하락하는 것은 식료품은 일정수준 이상 소비할 필요가 없는데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생활 등에 대한 지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 19세기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발견한 법칙으로 가계의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을 가리킨다. 식료품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을 소비해야 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엥겔계수는 하락하고 생활형편이 나빠지면 올라간다

광주은행 오늘 창립 39주년

광주은행(행장 정태석)이 20일 창립 39주년을 맞는다.

1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1968년 발족한 이 은행은 이날 현재 올해 목표치인 총자산 17조원은 이미 넘어서 18조 3천억원을 기록했고 세전이익도 1천580억 원에 달해 1천700억 원 목표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은행 부실여부를 가리는 건전성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총대출에서 우량대출 비중이 48%를 차지하고 있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도 10.8%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작년 0.98%에서 0.57%로 낮췄고 연체율도 1.2%에서 0.67%로 감소했다.

이밖에도 지방은행으로서 서울지역 영업을 크게 증대시켜 올해 9월까지 총수신 4조1천억원, 총대출 2조280억원을 달성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부동산 규제 지역별 특성맞게 지방 – 수도권 차등 적용해야”

한국건설산업연 주장

최근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역별 수급특성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전매제한, 부동산 세제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지방주택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박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9만1천714가구이며 이중 지방물량이 95%에 달할 정도로 지방 경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 지난 6월 중견건설회사인 신일에 이어 이달들어 KT건설·효명건설·거림건설 등이 줄줄이 부도를 내는 등 올 들어서만 일반 건설업체 102개사가 도산했다.

강 위원은 “현재 지방 주택시장은 정부의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투기위험이 없는 지방의 주택정책을 달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반시설부담금 등 개발. 건축관련 부담금을 통합 단순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위원은 이와 함께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확대 ▲지역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환경규제 극복 중기청 지원 시스템 오픈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이 19일 중소기업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규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규제 대응 지원시스템 (http : //selfcheck.smba.go.kr)’을 오픈했다.

중소기업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 중소기업이 자사제품의 규제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규제대응에 미흡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강의, 컨설팅, 친환경인증 획득, 규제물질 분석 등을 선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각국의 환경규제 확대·강화에 맞춰 이 사이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